

5·18단체들, 자유한국당 '진상규명위원회 추천' 경고

“제1야당으로서 특별법 시행막아...“추천위원 3명 검증할 것”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전남 5·18 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회 추천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3명의 추천위원 후보를 내놓음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5·18 희생자 어머니들의 단식농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머니들은 이번 추천위원들 중에서도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민원씨나 당시 진압군 대장으로 투입됐던 인사와 같은 인물들이 포함돼있을 경우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총지회,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등과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우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 시행 자체를 가로막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하는 국우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지는 자가당착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보여줬던 참담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현신할 수 있는 인사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식 중인 5·18 희생자 어머니들은 회견 내내 힘겨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회견 후 백리빙도 바다에 주저앉은 채 진행했다.

대표로 집의응답에 나선 한 희생자 어머니는 “한국당에서 계속 위원 추천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에 추천한 분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다”며 “5·18단체 대표들이 평화당 의원들이 한국당 추천 위원들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어머니는 “민약 5·18을 왜곡, 폄하한 분들이라면 저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한국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18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진상규명위원 추천에 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문희상 의장과 의정회동에 참석하는 바람에 5·18 단체 관계자들은 원내대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부 희생자 어머니는 원내대표의 사무실 문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평화당과 5·18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희생자 어머니들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임이 분명하다. 5·18 단체는 한국당의 추천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이름을 올린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종욱 현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차기환 현 우정함박방물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 등이다. 차변호사의 경우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특조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여야, 올해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뼈 있는’ 덕담

문희상 의장 “올해 화이부동으로 가아한다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원-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날 선 덕담을 주고 받았다.

문희상 의장은 비공개 전환 전 공개 발언에서 “올해는 의미가 크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모든 것이 고비를 맞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덕담을 했다.

그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화이부동(和而不同)’도 주문했다. 문 의장은 “다 같이 가야만 민주주의다. 그러나 큰 것을 위해서

는 하나로 뭉쳐야 민주주의”며 “올 한해 화이부동으로 가아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5부 요인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신년 음악회 개최도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 해 처음으로 의장을 모시고 원내대표들이 모였다”며 “올해도 의회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꽃 피우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면서 성과가 많은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도 여당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받아들여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데 잘 행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말했는데 대화를 하려면 만나야 한다. 지난 연말에 목은 숙제도 많은데 국회를 열어주지를 않더라. 이겁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이 화이부동을 말했다. 좋은 말이다”라며 “국민의 다른 목소리를 녹여서 화이부동하는 한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장께서 물론 잘해주겠지만 야당 요구에 패지해줄 때가 아니라 ‘패지패지’ 응대 해주십시오 한다. 국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부분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올해도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역사사죄하는 마음으로 각 정당이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어떤걸든 전부 꺼내놓고 큰 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협치 뿐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각 해당 상임위, 본회의를 수시로 열어야 된다”며 “여야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최근에는 여당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홍 원내대표가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의논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靑 의전에 문제 제기...“제1야당에 전쟁 선포하나”

신임 비서실장 예방 안온 것 지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예방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예방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모두발언 중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뀌었다. 역대 비서실장은 원내대표단에 인사를 온 것으로 인다”며 “그러나 안 오기로 결정한 것 인지 연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 “당연히 온다. 우리도 안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연락이 없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게 순서가 있다. 비서실장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 신임 실장이 여야 5개 정당 중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만 아직 예방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노 실장 등 청와대 2기 참모진은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 위원장 일정으로 예방하지 못했다. 노 실장 등은 오는 15일께 김 위원장을 다시 예

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순서와 격식이 있어야 하는데 야당 비대위원장도 아직 못 만났다”며 “불론 일정상 그럴 수 있지만 (의장이) 아셔야 한다. 의장이 청와대에 적극 지적해달라”고 했다.

그는 “순서를 봐야 하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것 자체가 야당을 존중하는 메시지다”라며 “일부러 피하시나 제야당을 무시하시나. 신년부터 제야당을 무시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전쟁을 선포하나 생각할 정도”라고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 복당 불허’ 이용호 ‘담담히 수용’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복당 신청을 불허한데 대해 “민주당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복당신청 과정에 대한 모든 말은 삼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나라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며 “정치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언행을 무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안타까운 건 저를 응원하고 환영해주신 지역민들과 당원들이 입었을 상처”라며 “그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자로 입장을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과거 행적 때문에 복당이 불허됐다는 민주당의 발표를 인정하는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언급할 말이 없다. 기자회견문으로 대신 해달라”고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